

社說

尹·韓 충돌, 국정과 국민 위해 여기서 끝나야

한동훈 후보가 23일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62.8%라는 압도적 득표를 했다. 총선 석달 전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돼 선거를 이끌다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103일 만이다. 여당의 쇄신과 변화, 새로운 당정 관계에 대한 당원과 민심의 기대를 안고 당대표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한 대표 앞에는 많은 난제가 놓여 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재정립하는 문제다. 이번 전당대회가 극한 갈등과 내분으로 치달은 근본 원인은 이 경선의 바탕에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대결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 폭로, 공소 취소 요청 폭로 등이 이어졌다. 총선에서 참패해 108석 소수당으로 쪼그라든 집권당이 쇄신하고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곧 갈라설 사람처럼 싸웠다.

양측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이다. 한쪽은 감싸려고만 하고, 다른 쪽은 혐의 없이 다른 목소리를 내니 부딪히기만 한다. 한 대표는 당선 후 "내 정치적 목표는 윤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이제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더 이상 갈등은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시로 소통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국정도 성공할 수 있다. 한 대표는 조계진 국민의힘 내부도 수습해야 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 서로 폭로하고 공격하다 자해 행위만 거듭한 최악의 전당대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당대회 투표율까지 하락했다. 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한 대표는 무엇보다 많이 듣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슨 일이든 지지 않고 맞바치는 자세는 당대표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여권 전체의 조정자가 되기도 힘들다. 친윤계도 한 대표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낙마시키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친윤계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채 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통령 탄핵, 각종 입법 폭주 등 정치 현안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 와중에 대통령과의 이견이 언제든 노출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지리발을 건너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야당과 대화하면서 연금·노동·교육·의료·규제 개혁 등 국정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속제도 안고 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 역대에 이던 여당 대표의 처지가 없었다. 이 실타래를 푸는 첫걸음 역시 윤 대통령과 신뢰 회복이다.

카카오 김범수 구속, '혁신' 상실이 진짜 위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공동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 의장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벤처 신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김 의장이 시세 조종 혐의를 받게 된 것은 충격적이다. '흙수저' 출신 김 의장은 대기업 직장을 떠나 창업한 뒤 혁신의 DNA로 거대 기업 카카오를 이끌었다. 지난 2020년엔 매출 3조원에 불과한 카카오가 매출 100조원에 넘는 현대차를 누르고 시가총액 10위권에 진입했다. 그만큼 미래 성장성에 기대가 컸다. 2021년에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하지만 카카오가 '공룡 기업'으로 크는 과정에서 혁신 DNA는 흐려졌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 대신 플랫폼 사업 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는 데 주력했다.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던 헤어숍·꽃배달 사업까지 진출하며 기존 재벌 그룹을 능가

하는 과도한 문어발식 확장과 골목 상권 침해로 비판받았다. 2018년 60여 개이던 카카오 계열사는 지난해 말 기준 138개에 달한다. 몸집 축소를 약속하면서 40여 곳을 정리했지만 계열사 수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

카카오는 도덕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은 상장 직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팔아치워 800억 원을 챙겼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에 배차 폭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위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분식회계 의혹으로 80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금감원 제재도 입박했다. 혁신 기업이 기존 대기업과 비슷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덩치를 키우면서 IT 기업이라면 승부를 걸어야 할 AI(인공지능) 같은 미래 성장 투자는 적기를 놓치고 경쟁에서 뒤처졌다. 급기가 기업 인수 경쟁을 벌이다 총수 구속 사태까지 맞았다. 카카오의 진짜 위기는 혁신의 상실일 것이다.

"무관심이 불의 키워" 美서 북한 인권 외친 배우

영화배우 유지태씨가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국제대회'에서 영어로 6분간 연설했다. 통일부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 유씨는 정부의 북한 인권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불의를 키우는 건 불의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이다. 우리의 행동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상처를 치유할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 관한 것만 이유 때문에 특정한 색깔로 칠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북한 내부의 사람들"이라고 했다. 전 세계 진보·좌파들의 주요 관심사인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 인권의 당사국인 한국에서 일부 세력에 의해 공격받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유씨의 북한 인권 운동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이뤄졌다. 그는 10여 년에 걸쳐 탈북민들을 만나 그들을 주제로 한 웹툰의 시나리오를 직접 집필했다. 그는 몇 년 전에는 국내외 불우 어린이들을 10년 이상 후원한 공을 인정받아 국제구호개발 NGO가 주

는 '제1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을 받기도 했다. 기부 활동이 북한 인권 운동으로 확장된 것이다. 평소 기부 활동을 많이 했던 영화배우 차인표씨도 2012년 탈북자 복송 반대 집회와 콘서트를 개최했고, 많은 동료 예술인의 참여를 이끌었다.

국내에서 북한 인권은 무관심을 넘어 정치적으로 왜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회는 2016년 북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북한 인권재단 설립 등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지만, 아직도 재단은 출범하지 못했다. 20대 총선 이래 제1당의 위치를 점유한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탈북민을 "변절자" "쓰레기"로 부르며 매도하기도 한다. 민주당 등은 북한 인권을 말하면 북한 정권을 자극해 북한 주민에게 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북한 주민의 참상은 이미 그런 논리로 눈감을 수준을 넘어섰다.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목적은 단 하나, 김정은 권력 유지다.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김정은과 그의 폭압을 돕는 불의일 뿐이다. 민주당도 이제는 낡은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초등의대반法', 다 같이 앉아 영화 보게 할까

태평로



김민철 논설위원

1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초등 의대반을 거쳐 한 학생이 의대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현재에서 언급한 대로 여러 부작용만 떠오를 뿐이다.

사격세는 울기를 국회 제출을 목표로 이 법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호응이 좋다고 한다. 이 단체는 10여 년 전 선행학습금지법을 처음 제안한 곳이고 실제 공교육에서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입법까지 됐다.

선행학습은 '다 서서 영화보기' 초등의대반 퍼져도 속수무책

문제는 24년 전 현재 위한 결정 논란 없게 법안 다듬어 보았으면 '초등 의대반 방지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자는 것일까. 이 단체에 알아보니 현재 법 조문을 만드는 과정인데, 사교육 선행 학습 중에서도 학교급(級)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선행 학습시키는 것은 방지하지는 조항을 현행 선행학습금지법에 넣는 것이 골자라고 한다. 초등 6학년이 겨울방학 때 중학교 과정을 학습하는 것, 영재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까지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과잉 사교육, 선행 학습을 비

유하는 표현으로 '일어서서 영화 보게'가 자주 쓰였다. 영화관에서 일부 관객이 일어서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뒷좌석 관객도 줄줄이 일어서서 볼 수밖에 없다. 다 같이 과잉 사교육을 안 할 수 있는데, 일부에서 시작하자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피곤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 법을 만들면 다 같이 앉아서 영화를 볼 수 있겠다.

현재는 지난 2000년 사교육 과열의 폐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당시 결정문을 보면 현재가 위험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고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규제했다는 것이 핵심 이유였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과잉 입법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겠지만 초등 의대반 같은 망국적인 현상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데 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24년이 흘렀으니 현재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저출생으로 고객이 점점 줄어드는 사교육 세력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더욱 위험 시비를 최소화하면서 과도한 선행 학습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핀셋 대책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교육부도 변죽만 울리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초등의대반 방지법'처럼 그물을 넓게 쳐서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김준의 맛과 섬 [200]

울릉도 물영경귀닭개장

육개장은 소고기에 나물, 고춧가루를 넣어 얼큰하게 끓인 탕이다. 밥을 말아 국밥으로도 좋고, 애주가에게는 안주이자 해장국이다. 조선 시대에는 육개장으로 북달임을 하기도 했다. 섬에서 소를 키우는 일도 쉽지 않지만, 탕을 만들려고 소를 잡는 일은 드물다. 그래서 울릉도에서는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콩치를 택했을까. 콩치살을 발라내고 곡물을 넣어 다진 경단으로 육개장 같은 국을 끓였다. 이때 함께 넣은 채소가 영경귀다. 이렇게 걸쭉한 콩치경단물영경귀국 한 그릇이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한때 울릉도 연안 해조류에 알을 낳기 위해 몰려든 콩치를 손으로 잡았지만 이제 그물로도 예전처럼 잡지 않는다. 천부리에 소고기도 아니고, 콩치도 아니고, 닭고기

를 넣어 조리한 영경귀닭개장이 있다. 닭을 푹 삶아 살을 발라내고 뼈로 육수를 만들어 영경귀를 넣고 끓인다.

울릉도 영경귀는 물영경귀다. 섬영경귀, 어경귀, 영경귀, 울릉영경귀라고도 하는 국화와 여러해살이풀이다. 육지 영경귀와 달리 가시가 거의 없어 부드럽고 맛이 달다. 그래서 나물로 먹기 좋다. 훗날이나 따개비밥을 차려낼 때 함께 나오는 된장국은 대부분 영경귀 된장국이다. 식량이 귀할 때는 명이나 물처럼 죽을 쑤기도 하고 밥을 지을 때 넣어 쌀을 늘려 먹기도 했다. 외과 줄기뿐만 아니라 뿌리는 약재로 이용한다.

명태가 사라지고 콩치가 귀해지는 사이에 섬영경귀는 성인봉에서 텃밭으로 내려왔다. 울릉도 서면 남양리에 협소를 만나러 갔다가 산자락을 일군



밭에 가득한 영경귀를 만났다. 사동리 바닷가에서는 집 앞 작은 텃밭에 물영경귀를 옮겨 심는 주민을 만났다. 바닷물고기는 섬 주민들이 불러올 수 없지만, 산나물은 텃밭으로 옮겨 심을 수 있다. 이제 명이나물이 그랬듯이 산속 깊은 곳이나 벼랑에 매달리지 않아도 물영경귀를 밭상에 올릴 수 있다. 자연산을 고집하며 산에 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울릉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텃밭에서 자란 산나물도 고맙다. 덕분에 물영경귀는 2020년 국제슬로푸드협회에서 꼭 지켜야 할 식재료 '맛의 방주'로 지정됐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국민의힘에게 거듭 당부한다 ★여론조사★언론의 자기 정치★팬덤 정치 멀리하라

뉴스데일리 newdaily.co.kr

운동권, [광우병] [춧불난동]으로 MB-박근혜 제압 이제 윤석열도 또 그렇게 죽이려 하고 있다  
장엄한 투쟁인가, 알파한 시류영합인가... 응답하라

이리로 갈 것인가

7월 23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한동훈은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중도-청년의 민심]에 맞춰야 한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도 [그런 민심]을 배척하진 않는다.

그러나 세 후보들은 한동훈의 [인성(人性)]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의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한동훈의 뼈때림]도 비판했다.

기회주의 섞어찌개

한동훈의 [수도권-중도-청년 치켜세우기]를 나쁘다 할 이 유란 없다. 그러나, 정 그렇다면 예컨대 [명남 자유보수우파 민심]은 [한동훈 민심]에선 빠져 있나?

▲ 저들은 [광우병]으로 MB를 식물화 시켜버렸다. [춧불난동]으로 박근혜를 제쳤다. 이제 윤석열을 같은 방법으로 죽이려 하고 있다. 저항할 것인가, 영합할 것인가.

[중도-실용]이란 말도 그렇다. 그보다는 [전체 국민의 선명 자유 투쟁]을 외치는 편이 더 적절치 않을까?

[중도-실용]은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의 위상이다. 자유주의는 18세기엔 절대왕정에 맞섰다. 20세기엔 [극우 나치 + 극좌 공산당]에 맞섰다.

그런데 이제 와 누가 정통 자유주의를 제치고 [중도-실용]을 자신의 어중간한 정치적 치세술로 오용(濫用) 하는가? 그건 [참 중도]가 아니다. [기회주의 섞어찌개]다.

거듭되는 [반역]

근대 자유민주주의는 한반도에선 이승만이 선취(先取)했다. 박정희가 그 물질적 기반을 이룩했다. 1987년의 민주화는 위 두 흐름에 4.19의 자유-인권-공정-합류에 일귀낸 열매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엄습한 [극좌 NL 운동권]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반역]이었다.

이 [반역 시리]로 그들은, ★이명박 정부를 [광우병 행태]로 식물화했다. ★박근혜 정부를 [춧불 난동]으로 깨부수었다. ★윤석열 정부마저 또 그렇게 죽이려 한다.

답답한 국힘, 이번엔 제대로 싸워라

답답한 것은, 이들의 민낯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그것과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응답하라 국민의힘,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장엄한 투쟁의 길인가, 알파한 시류(時流) 영합의 길인가?

자유 국민은 [문재인 5년 + 이재명 3년]의 횡포에 시달리

는 과정에서, 각성된 전사로 태어났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정청채 해임 청원에 나선 인파!

국민의힘도 전 같지만은 않다. 나경원-김민전 두 여전사가 힘찬 공동 투쟁을 선언했다. 전례 없는 격동(激動)이다.

책임당원들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라. 그리고 다짐하라!

※ [여론조사]에 휘둘리지 말라!  
※ [언론의 자기 정치]에 휩쓸리지 말라!  
※ [팬덤 정치]에 휘말리지 말라!

이류 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류근일 칼럼: 한동훈 인성이 나경원에 준 상처

한동훈은 본래인 정부 법무장관?... '이런 수가...' 국힘 당원들, 아파함에 환멸 느끼나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7월 23일 게재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7월 23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00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류근일 오프라인 칼럼이 오늘로 100회를 달성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덕분입니다. 200회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